metro
메트로 2013년 5월 2일 목요일 제2723호

Entertainment p/18
시크릿 걸그룹 3파전 승리

ECONOMY p/08

싸이 시건방춤 '응원'… 류현진 6이닝 12K 3승 '화답'

브리태니커에 이름 올린 월드스타 – 시즌 첫 타점 폭발한 괴물 싸이가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에 LA 선발 투수로 나선 류현진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아 선물인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시건방춤을 추는 깜짝 퍼포먼스로 4만여 관중의 환호를 받고 있다. 류현진은 싸이의 응원을 받기 직전인 3회 공격에서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첫 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3승을 수확한 류현진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싸이에게 자신의 배번과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선물했다. 한편 싸이는 브리태니커에 이름이 올라 월드스타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22면> /AP 연합뉴스

5개국어 선거벽보 쓰는 캠퍼스

대학들 외국인재 유치 봇물…종교·음식 등 '글로벌 문화' 확산

지난달 26일 서울 노고산동 서강대 교정. 흩날리는 벚꽃 사이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대자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 몽골리아어 등으로 작성한 대자보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한껏 자아낸다. 강의실은 물론 대학 교정에서도 다양한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마치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지난달 27일 동국대 대각전. 청가리 출신 청안 스님의 '명상과 치유' 법회가 열렸다. 놀라운 것은 법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 유학생들이 불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1년 전부터 학교 측이 토요 영어 법회를 따로 마련한 덕분이다. 4월에는 미국인 교수가 법사로 나선다. 이 학교는 격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중국어로도 공개 법회를 진행한다.

우물 안 개구리'란 비난을 받아왔던 대학 문화가 최근 들어 글로벌하게 변모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이 외국 인재 유치에 앞장서면서 언어는 물론이고 종교, 음식, 선거 등에도 외국 문화 접목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대학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영어 강의 무작위 개설과 묻지마 유학생 유치로 학내 분위기를 흐리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1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학위취득 또는 어학연수 목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8만6519명이다. 2007년 같은 기간 5만6006명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동서양의 거의 모든 문화를 국내 캠퍼스에서 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오전 찾은 가톨릭대 성심캠퍼스의 'O.B.F.' 카페. 이른 아침이지만 한국 학생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모여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다양한 언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카페를 운영하는 학생 단체 O.B.F 마스터 회장 우지현(21·국제학부) 학생은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공간"이라면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 중국어 법회·영어 제를도 등장

글로벌 캠퍼스는 종교도 넘나든다. 영어·중국어 법회를 열고 있는 동국대를 비롯해 연세대·이화여대 등에서는 영어 제를도 진행 중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법회가 자아와 명상, 마음의 자유 등 실용적인 주제를 다뤄 동양 문화에 관심 있는 해외 유학생, 외국어를 배우려는 한국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음식 문화도 글로벌화 추세다.

서울대와 한양대는 각각 채식 뷔페와 이슬람 식당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서울대 석사과정 군모(26)씨는 "채식 뷔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국 음식을 못 먹는 유학생들이 즐겨 이용한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 선거 문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성균관대·외국어대 등에서는 몇 년 전부터 유학생 표심을 잡기 위해 영어는 기본, 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선거 벽보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가톨릭대 영미언어문화학부 이창봉 교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 당국은 국내외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대졸 초임연봉 가장 높은 神도 부러워할 공기업

'3918만원' 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가운데 대졸 초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의 2012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초임이 39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1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항만공사(3692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3501만원), 한국마사회(3429만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3392만원), 한국수력원자력(3294만원), 한국공항공사(3263만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207만원), 부산항만공사(3186만원), 한국중부발전(3185만원) 순이었다.

공기업 신입사원(대졸·사무직 군미필자·무경력자 기준) 연봉 평균은 3058만원으로 전년(2775만원)보다 10.2% 상승했다.

한편 공기업 전체 평균 임금은 7204만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2.1% 상승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877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8593만원), 한국마사회(8496만원), 한국가스공사(803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 상승폭이 가장 큰 기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15.9%)였고, 한국감정원(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2%), 한국도로공사(5.6%)가 뒤따랐다.

/하국영기자 kmks@

가공식품값 다시 들썩

업체들 정권 눈치보기 벗어나 과자·두유 등 인상

2000만원짜리 경품… 당신이 5월의 여왕 1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여왕의 하루 경품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여왕의 하루 이벤트 응모를 실시, 1등 당첨자에게는 최고급 스파에서 마사지 체험과 2000만원 상당의 쇼핑,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 등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잠잠했던 가공식품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 가격 인상 타이밍을 놓친 업체들이 뒤늦게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어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바닐라 쿠키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기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회사 측은 기존 80g들이 제품 중량을 86g으로 늘리며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남양유업도 조만간 '맛있는 두유 GT' 검은콩 두유와 검은깨 십칠곡 두유의 소매점 가격을 각각 10%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은 이미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연말 검은콩 두유는 16개들이 묶음을 1만500원에서 1만1400원으로, 검은깨 십칠곡 두유는 1만4000원에서 1만5200원으로 인상했다.

오뚜기는 이달 중순부터 편의점에서 참깨라면, 컵누들, 열라면 등 용기면 제품 가격을 50~100원가량 올렸다. 오뚜기 용기면 가격을 올린 것은 2008년 4월 이후 5년 만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일 평균 7.1% 올린 장류 가격을 다음달부터 편의점에도 적용한다.

업계 안팎에선 이달 말께는 과자와 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시도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그간 최소한의 가격만 올린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박재림기자 pjr@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식중독 지수' 하루 두차례 11월까지 서비스

● 식중독 지수가 11월까지 하루 두 차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은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6시 식중독지수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식중독 지수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식약처·기상청 홈페이지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홈사이트(www.mfds.go.kr/fm), 식중독 예방 홍보 앱에서 받을 수 있다.

/김유리기자

스마트 안전귀가 앱 예약실행 등 기능 개선

● 어린이·여성·노약자의 안전귀가를 돕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의 예약 실행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정보 약자를 위해 앱에 실행 시간 예약 기능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앱은 사용자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청소년 금지구역 등을 지나면 벨이나 진동으로 알려줘 위험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호자에게는 문자 등으로 위치를 알려준다.

/김유리기자

고졸 9급 일반직 공무원 120명 뽑는다

지난해보다 20% 늘려

정부가 고졸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20명 뽑는다. 특성화고나 전문대 출신 기능직 9급 국가공무원도 50명 선발한다.

안전행정부는 1일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gosi.kr)를 통해 '2013년 지역인재 및 기능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8월 24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10월 19일에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고졸 일반직 9급은 지난해 1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 20% 확대한 것이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종합고의 올해 2월 졸업자와 내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직렬별로는 회계가 35명 선발로 가장 많고 세무 25명, 관세 10명, 공업 16명, 농업 25명, 시설 5명, 보건 2명, 환경 2명이다.

특히 선발 과정에서 지역별로 특정 광역자치단체 출신이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지역 편중을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명을 선발하는 기능직도 특성화고·전문대 올해 2월 졸업자나 내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채형조기자

공공기관장 판공비 지난해 63억 '펑펑'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1억원 육박 '최고'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판공비'로 지난해에만 6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전국 295개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 합계는 63억4300만원이었다. 2011년보다 1.1%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보다 34조4000억원 늘어난 49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조8000억원의 순손실로 적자 행진도 계속됐다.

기관별 지출 내역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지난해 9600만원을 지출해 최다액을 기록했다. 임기 첫해인 2011년의 45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개별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액 현황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의 소규모 기관으로 지난해 매출액 245억원, 부채 13억5500만원, 당기순손실 5억원을 기록했다. 정 원장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7400만원)과 건설근로자공제회장(7200만원)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김유리기자 grace17@metroseoul.co.k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815> 그림 박상철

넬슨 만델라, 대통령 당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변호사 넬슨 만델라는 1944년 이래 인종격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해 흑인해방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잔혹한 사건 뒤에 무저항주의에서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바꿔 활동하던 중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약 27년간 죄수번호 46664로 감옥 생활을 했다. 93년 백인 정치가 프레데리크 데 클레르크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만델라는 94년 5월 2일 남아프리카 최초의 민주 선거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99년까지 재임했다.

'안심직장' 만드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입을 미뤘다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보험료 외에 연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절차와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본다. /김종훈기자

Q. 누가 가입해야 하나

A.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림어업과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다. 면허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 100㎡를 초과하면서 총 공사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Q. 고용보험 혜택은

A. 근로자의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실업급여 주고 사업주도 지원금 혜택 가입만 하면 '모두 윈윈'

Q. 산재보험 혜택은

A.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및 치료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된다. 또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Q. 보험료를 경감 또는 보조받는 방법이 있나

A.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제도가 있다.

Q.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A.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Q. 법정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A. 소속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정해진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 기타 궁금한 사항은

A.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해도 된다.

엄마와 함께 원자력 공부

에너지 미래를 생각하는 학부모 서울 교육이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2개 초등학교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탐구교실' 출발교사 행사를 개최했다. 출발교사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원자력 큐브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제공

부산 찾는 외인환자 3년새 3배

지난해 1만4125명…시, 유치업체 마케팅 지원

부산시는 2013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마케팅 지원 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본격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산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9년 4676명, 2010년 5921명, 2011년 1만31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1만412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시는 의료관광객 유치 첨병 역할을 하는 유치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마케팅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부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는 총 58곳.

시는 유치 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시장성 및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행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유치 업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3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과 2014 국제의료관광 해외특별전시회 참여 및 자체 팸투어 사업 등 대규모 국내외 전시회에는 시 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 주최 해외설명회 및 팸투어 주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달부터 의료관광 해외 설명 지역 다양화, 연간 팸투어 참가 업체 공모 시행, 한국관광공사 조성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전문 유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대선주조, 부산생활체육회 협약 부산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주)와 부산시생활체육회는 지난달 30일 부산 사직동 대선주조 본사 회의실에서 상호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대선주조는 이날 부산지역 160만 생활체육동호인의 총본가관인 부산시생활체육회에 자사 생산 제품인 '시원'과 '즐거워' 소주를 표준해 총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리스타 등 4개강좌 운영

부산 동래구는 동부산대학과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커피바리스타, 수학지도사 등 4개 강좌를 안락동 동부산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커피바리스타 마스터 과정'은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강의하며 정원은 25명이다.

또 오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양성과정'은 30명이 정원이며, '실버 IT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과정'은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며 25명이 정원이다.

일반인 참가자는 각 과정의 교재비와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소외계층은 구에서 전액 지원해준다. 접수는 10일까지 선착순이다. 문의 051)520-2521

스승의 날 맞이 이벤트 다채

부산아쿠아리움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글짓기 대회, 무료 입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스승의 날에는 교사 본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동반 3인까지 1만5000원으로 할인해준다. 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복지회원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또 부산시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담임교사 자랑하기 글짓기 대회'를 진행한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누구나 5월 1~12일까지 홈페이지(www.busanaquarium.com)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해풍 맞고 자란 남해마늘종 수확 경남 남해군 농민들이 봄철 해풍(海風)을 맞고 자란 남해 마늘종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터키 FTA 발효

부산시는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한·터키 FTA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0.[illegible]%(수출 25위국)다. 특히 이번 FTA로 부산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등의 관세가 철폐돼 지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인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원자재,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터키의 산업구조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활로 모색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교류봉사단 모집합니다

국제교류재단 50명 모집… 베트남·캄보디아 파견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시 자매도시인 호치민시와 프놈펜시에 파견할 문화교류봉사단을 모집한다.

파견 기간은 방학 기간인 7월 중으로 캄보디아(7월 14~23일), 베트남(7월 21~30일) 등 8박10일의 일정이다.

봉사단 모집인원은 베트남 호치민시, 캄보디아 프놈펜시 각 25명이다.

선발된 50명의 봉사단은 현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음악·태권도·과학을 가르치게 된다. 해당 과목 전공자 및 사물놀이, 태권도 시진촬영 특기자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특히 봉사단은 부산지역 의료봉사 단체인 그린닥터스, 부산사랑 이대석 국제의료봉사단'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항식항공료이며 참가비를 제외한 숙식비 등 현지체재비 전액은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부담한다.

신청은 5일까지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www.bfia.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 051)668-7916, 7928

이달부터 오존 농도 예·경보제 시행

부산시는 이달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예·경보제 이 기간 중 ▲오존 농도 감시 ▲권역별 대기질 정보 제공 ▲오존경보상황실 운영 ▲오존 주의보·경보 ▲오존 저감 대책 등을 펼친다.

시와 구·군,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오존 발생에 따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기상청) 및 대기 오염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오존 농도를 분석 또는 예측해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 이상일 경우 오존 주의보, 0.3 이상은 경보, 0.5 이상은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발령과 함께 부산지역 관공서·학교·병원·대기배출시설·운송기관 등 4622곳에 관련 경보가 동보전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오존 주의보와 경보를 알려 줄 예정이다.

산복도로 '유치환 우체통' 15일 개소··전시회도 열려

부산 동구는 초량동 일대에 면적 18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한 '유치환 우체통'을 오는 15일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

유치환의 우체통은 경남여고 교장을 역임하고 부산고등학교 교가를 작사했던 청마 선생의 문학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산복도로를 한눈에 조망하는 안내센터와 문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의 1층에는 야외공연장인 커뮤니티 마당이 들어서고, 2층에는 시인의 방이 만들어진다.

특히 3층에는 북항을 정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하늘전망대와 함께 편지를 넣으면 6개월 뒤 배달되는 우체통이 마련된다.

구는 이곳을 청마음악회, 청마 영화제, 미술교실, 노인 자서전 쓰기, 인문학 강좌 등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15일 유치환 우체통 개소 특별전으로 2층 시인의 방에서 김봉잔 윌로화백의 작품들이 어우러진 전시회를 연다.

울산 옹기축제 개막 전국 최대 규모의 옹기 집산지인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옹기마을에서 울산의 대표 문화 축제인 2013 울산 옹기축제가 2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모습. /연합뉴스

국립 부산과학관 9월 첫삽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 부산과학관이 오는 9월 첫 삽을 뜬다.

부산 기장군은 9일 오후 3시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동부산관광단지 내 산 8-6번지 일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 주관으로 국립 부산과학관 기공식을 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준공 예정인 국립 부산과학관은 11만3107㎡에 전체 면적 2만4906㎡ 규모로 상설전시관, 연구시설, 교육시설, 관리실, 천체관 등을 갖추게 된다. 국비와 지방비 1316억원이 투입되는 국립 부산과학관에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을 놀이 등을 통해 체험하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동희
편집국장	조현표
부산지사장 이사	김종춘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3-2100
독자센터	02)721-9882

2002년 5월 5일 창간 2007.3.26 등록번호 서울가-00237

"타파웨어 지구사랑 어린이 사생대회에 오세요"

19일 통도 환티지아에서 부산 · 경남 · 울산 지역 초등생 대상

'지구 환경 사랑' 주제로 부산 지역최초 개최

부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사생대회가 개최된다.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는 오는 19일 통도 환타지아에서 '아이 러브 얼스(I LOVE earth) 지구사랑 어린이 사생대회'가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대회는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 놀이의 후원으로 부산 · 경남 ·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주제는 지구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참가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이나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번 대회의 참가비 전액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국내 빈곤아동 통합지원사업인 '체인지 더 퓨처(Change The Future)'에 후원 기부될 예정이다.

참가 어린이와 가족모두에게 푸짐한 선물 증정

타파웨어 브랜즈는 사생대회 참가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해 다양한 에코 선물을 준비했다.

500여 명의 참가 어린이에게는 타파웨어 브랜즈의 에코 물통 주니어와 그림도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통도 환타지아 빅3 입장권(4인 기준)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또 사단법인 전국교원미술협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회에서 수상한 어린이 40여명에게는 상패와 타파웨어 제품, 문화상품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부상을 지급키로 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준비됐다.

행사장 내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 에코 퀴즈를 풀면 타파웨어 에코 템을 증정하는 에코 미션 게임, 전기 에너지 소모 없이 손잡이만을 돌려 달걀 친환경적으로 건강 스무디를 만들 수 있는 스무디 자전거 체험존 등 지구사랑 실천법을 배울 수 있는 이벤트 존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페이스 페인팅, 지구사랑 좋아요 카드 이벤트, 에코 피플 제임사진 찍기, 타파웨어 에코벨과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에코 가족사진 찍기 등의 행사도 준비된다.

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6일까지 타파웨어 홈페이지(www.tupperware.co.kr)의 사생대회 접수페이지 또는 좌측의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며 발표는 문자 및 해피콜로 개별 통보된다.

문의 event@tupperware.com 02)3448-1813

<디지털+아날로그>

연극 디지로그를 만나다

BIPAF 내일부터 12일까지 · 7개국 23개 작품 출품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가 3일 개막해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등에서 열린다.

올해 참가 작품은 7개국 47개 작품으로 지난해 7개국 23개 작품에 비해 늘어났다.

BIPAF는 올 행사가 1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 ▲BIPAF 콘셉트 ▲BIPAF 오프 ▲고, 어바웃 오프 ▲야외 공연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나양화를 시도했다. 입장권을 전석 1만원으로 통일해 관객에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개막작은 스페인의 '파가니니', 폐막작은 오스트리아의 '유령'이다.

올해 연극제 메인 콘셉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을 그린 '디지로그(Digilog)'로 디지털 기술과 본질적으로 아날로그에 가까운 공연예술이 결합해 빚어내는 새로운 예술 경향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첨단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공연 전 기술감독이나 연출가가 미리 관객에게 강연을 하는 BIPAF 강연회와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연극 경연인 '10분 연극제'와 야외 공연, 파티, 이벤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준비된다. 한편 개막식은 3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카부츠 벼룩시장 5일 열려

부산 신세계센텀시티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어린이날인 5일 백화점 야외주차장에서 카부츠 벼룩시장 '병아리떼 종종종'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카부츠 벼룩시장은 자신의 자동차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싣고 와 트렁크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주차장에서 바로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말한다.

행사장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마당과 가족줄넘기, 퍼즐놀이 등 마당놀이, 아름다운가게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상품판매 전시 및 물건 판매 등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일까지 신세계 센텀시티 9층 문화홀이나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www.bstore.org)를 통해 할 수 있다.

골든위크 맞아 밀른 관광객 부산 '북적' 30일 오전 부산 영도구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일본 관광객 3000여 명이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를 맞이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인 보이지호를 타고 부산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발 80% 싸게 사세요

메가마트 슈즈데이 마련

메가마트는 오는 9일까지 동래점과 남천점에서 신발 할인 행사인 '슈즈데이'를 연다고 1일 밝혔다.

국내외 유명 구두, 운동화 등 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개점 이후 최대 물량인 3만여 켤레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먼저 금강제화, 에스콰이아, 영에이지, 소다, 미스미스터, 무크, 랑지 등 국내 유명 브랜드 구두 10여 개 업체가 신사 및 숙녀화를 최대 80% 할인된 1만9000~6만9000원에 판매한다.

또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 헌나이키, 뉴발란스, 휠라 등의 운동화와 아동화를 병행수입을 통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국내 오프라인 매장 최저가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메가마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신발 멀티숍 스엠 매장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매장에서 판매되는 구두, 운동화, 아동화, 등산화 등 전 품목을 10% 할인해준다.

메가마트 스엠 바이어 박현경 팀장은 "이번 기획전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알뜰 쇼핑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부산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은 대상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0.05% 이상으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나 도로 이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골목길 등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경우 등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협 복지기금 마련 걷기대회

신협이 1일 '한국신협의 날'을 맞아 부산지역 임직원 393명이 함께 사회복지기금 마련 걷기 대회 및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이기대 갈맷길을 걸으며 1㎞당 2원씩 적립해 총 600만원의 사회복지기금을 마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에 전달했다.

신협봉사단인 두손모아봉사단은 지난 2012년 부산지역자원봉사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지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6개월 일하고 404억
마이어 야후 CEO 연봉

야후의 최고경영자(CEO) 마리사 마이어(사진)가 지난해 출산휴가를 포함해 6개월간 근무하고 3660만 달러(404억 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야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마이어는 기본급으로 45만4862달러, 성과급 보너스로 112만 달러를 받았고, 주식 3500만 달러어치도 함께 챙겼다.

마이어가 올해도 CEO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기본급은 100만 달러에 이르고 보너스와 주식은 몇 배 늘어난다. 더불어 올해부터 연간 20일의 유급휴가 등 다른 고위 간부들에게도 주어지는 각종 특혜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조선미기자

두 살 해나 "이젠 숨쉴수 있어요"

미국 일리노이 어린이병원에서 세계 최연소 인공 기관지 이식수술을 받은 해나 워런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회복실에 누워 있다. 옆 좌측은 아버지 다럴 워런(왼쪽)과 어머니 이영미씨. /연합뉴스

한국계 캐나다 어린이 인공기도 이식 성공

한국계 캐나다인 어린이가 세계 최연소로 플라스틱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기도 발육부전이라는 희소병을 갖고 태어난 해나 워런(2)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어린이병원에서 지난 4월 9일 인공 기도를 이식받았다. 해나는 수술 경과가 좋아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술에서 의료진은 지름 1.2cm가량의 플라스틱 섬유 파이프에 해나의 줄기세포를 붙여 배양한 뒤 이식했다. 배양된 인공 기도는 환자의 줄기세포 외에 다른 사람의 세포가 없어 이식 뒤 거부 반응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다.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나는 선천적으로 기도가 없어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식사도 전혀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생활해왔다.

아이의 부모는 의료진에게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는 6세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인공 기도 이식에 성공한 의료진에게 연락, 이번 수술을 성사시켰다.

해나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나는 서울에서부터 먼 길을 왔다"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건 기적"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눈앞 사람 죽어가는데…또 도진 중국인 고질병

metro China

한 누리꾼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범죄현장 녹화 동영상이 중국에서 논란을 빚었다.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남성을 돕지 않고 바라만 보는 비정한 행인들의 모습에 중국인들이 분노한 것.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허난성 사업반나 징홍(景洪)시의 큰길에서 발생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쫓으며 흉기를 휘둘렀다. 도망치려던 남성은 결국 붙잡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다. 그는 몸 곳곳에 상처를 입고 거리에 쓰러졌다. 행인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이 현장에 도착해 범인을 체포하고,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는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다.

이 동영상은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영상 사이트 여우쿠에 올라진 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7만 건에 달했으며, 댓글은 2000개가 넘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행인들의 무관심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다니 중국인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다"고 비난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Ecuador 이거 들면 집 한 채

에콰도르 코스타데마르필에서 지난달 28일 제16회 천하장사 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남성들은 거대한 타이어를 번쩍 들어올리며 엄청난 힘을 자랑했다. 이날 타이어를 가장 많이 들어올린 '천하장사'는 집 한 채와 사륜구동 승용차를 상품으로 받았다.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코스닥
1963.55 (+23.25)	563.87 (-4.49)

금리	환율
2.49 (-0.03)	1101.20 (-6.00)

뉴스&뉴스

뽀로로 파크에 NX300 테마존
청삼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명동에 테마파크인 뽀로로 파크(잠실점 롯데월) 내에 삼성 스마트 카메라 NX300 테마존을 만들고 NX300 형상의 뽀통로봇 꼬마기차 등글의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연다 /연합뉴스

잠자는 동전, 지폐로 교환을

"서랍 속 동전, 지폐로 바꾸세요." 한국은행이 5월 한 달간 동전 교환에 나섰다. 국민 1인당 400개가량 가진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것이다.

1일 한은은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등 2만여 점포에서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동전을 지폐로 바꿔준다. 홈플러스에서는 5월 중순께부터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김지성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꽃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장미(절화) 한 단의 전국 평균 도매가격이 4월 셋째 주(15~20일) 기준 2631원으로 전 주(8~13일) 2336원보다 13%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97원보다도 15% 오른 가격이다.

장미와 함께 가정의 달에 많이

'5월의 꽃' 카네이션 작년보다 30% 급등

찾는 카네이션도 4월 셋째 주 기준 한 단에 4043원으로, 전 주 3559원에 비해 14%, 지난해 같은 기간 3082원보다는 31%나 급등했다.

카네이션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소매상 등의 예비 수요가 늘며 4월 셋째 주 가격이 첫째 주(1~6일) 2970원에 비해 36%나 올랐다. 분화를 도매로 판매하는 하남 화훼직판장(190개 매장)은 4월 말 기준 장미와 카네이션 화분이 개당 3000~35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격이 10%가량 올랐다. 화훼 업계는 이달 초까지 장미, 카네이션 등의 꽃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후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집값 오르고 거래 늘고 '4·1 약발'

'9·10' 보다 효과 커 강남 재건축 중심 하락세 진정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다. 전국 아파트값이 소폭 변동하는 등 시장에서는 일단 하락세 둔화에 초점을 맞춰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9·10대책 때보다 거래량이 두 배 이상 늘었고, 강남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점쳤다.

1일 부동산114가 4·1대책 발표 전후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0.02%(4월 29일 기준)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직전 한 달 동안 -0.24%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서울은 이후 한 달 동안에는 0.01% 하락하는 데 그쳐 가장 큰 폭의 반전을 보였다.

다만 4·1대책 이전 한 달 동안 0.14% 오르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지방 아파트 가격은 대책 이후 0.1%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4·1대책은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한 2012년 9·10대책 때와 비교해 집값 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난해 9·10대책 후 한 달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0.29% 떨어졌었다.

무엇보다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9·10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9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144건이었지만 4·1대책이 발표된 올 4월(29일 기준)의 거래 건수는 5065건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시장 기대감으로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4·1대책의 효과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119㎡ 매매가는 한 달 새 1억원 이상 올랐다. 개포동 주공1단지 59㎡는 4월 초 10억1500만원에서 8000만원 올라 10억9500만원이다.

박미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최대 수혜 단지는 강남권 재건축"이라며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래가 늘고 매매가도 많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김지성기자 kuzyhero@metroseoul.co.kr

열고 닫고…재밌는 지퍼가방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3 대한민국 세계여성 발명대회 및 세계여성 창의특허박람회에서 한 업체 관계자들이 지퍼가 여러 개 달린 알록달록한 손가방인 지퍼 파우치 백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IT·내수소비주 강세 이어질 듯

코스피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방어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가전·소프트웨어·필수소비재·유통·화장품 및 의류·호텔 및 레저 등 IT 및 내수 소비재 업종은 지난달 5% 안팎의 수익률을 올렸다. 코스피지수가 4월 한 달간 3.20% 하락하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와중에도 경기방어주는 선방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방어주가 실적 등을 토대로 당분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경기방어주는 수익률이 양호할뿐더러 배당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상대적으로 좋다"며 "반면 경기민감주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은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계속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

‘무제한 통화’ 뭘로 걸까

유무선 둘다 혜택받는 KT 월5만1000원 一 한시 판매

최저요금 KT와 같은 LG 유선통화하면 유료 전환

월6만5000원 요금 SKT 8GB 쓰고 무선만 무료

지난 30일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망내외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내놓음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짜 통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요금이나 혜택이 통신사마다 조금씩 달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 유리한 통신사는 어디일까.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요금제 중 가장 싼 것은 KT의 '완전 무한 67'이다.

LG유플러스의 '음성 무한자유 67'가 무선전화만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유선전화에 걸 때도 공짜다. 두 요금제 모두 약정 할인을 받을 경우 월 5만1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월 기본 데이터량이 5GB로 적은 게 단점이다.

SK텔레콤은 '전국민 무한75' 요금제가 가장 싸다. 기본 제공 월 데이터량이 8GB로 여유가 있다. 다만 유선전화로 걸 때는 무료가 아니다. 실부담금은 월 6만5000원.

유선전화도 공짜로 걸려면 한 단계 위인 '전국민 무한 85'를 선택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량이 많다면 KT의 '129'나 LG유플러스의 124 요금제를 쓰면 된다. 매달 무제한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통신사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 유선 무료 통화 혜택, 데이터 제공량 등이 다르다.

다만 KT의 경우 전 요금제를 대상으로 데이터 이월 서비스를 한다. 이번달에 기본 제공량을 다 쓰지 못했다면 다음달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KT의 유무선 통화 무제한 상품은 10월 31일까지만 제공한다.

/박상훈기자 ze@metroseoul.co.kr

티몬 '어린이 날다!' 클릭하면 선물 가득 소셜커머스 티몬이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마련한 '어린이 날다' 기획전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선물을 선보이고 있다. /티몬 제공

미국 교과서 담은 어린이용 태블릿 어린이날을 앞두고 1일 서울 황학동 이마트 성계천점에서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교육용 태블릿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나비(Nabi)' 키즈 태블릿PC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제품은 미국 초등 교과 학습 콘텐츠를 담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 판매 가격은 16만9000원이다. /전일뉴스

이마트 패션판매원 1657명 정규직 됐다

SK그룹 5800명 전환 이어 대기업 비정규직을 최소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실업 해결과 고용 안정 등 대기업의 역할론에 대한 사회 목소리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마트는 1일 전국 매장의 패션 상품 판매직원 16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2007년 현금출납원 5000명, 지난달 진열전문사원 9100여 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마트는 "이제 이마트는 정규직 인원만 2만6000여 명에 이른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일반 단일기업으로는 최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마트는 이와 함께 이단 말까지 패션 상품 판매와 진열 전문사원 1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에는 SK그룹이 계열사의 계약직 직원 5800명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SK 관계자는 "현재 5500명으로 그룹 전체 직원의 12%를 차지하는 계약직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까지 3%선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1일 서울 응암동 이마트 은평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패션 상품 판매전문사원 문봉화(54)씨가 환하게 웃으며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전일뉴스

네이버 등기임원 연봉 20대 그룹보다 높아

국내 1위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 임원의 평균 연봉이 20대 그룹 임원 평균 연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HN은 직원과 임원 간 연봉 격차가 1년 새 더 벌어졌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N은 지난해 8명의 등기임원에게 1인당 평균 12억5369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보다 16.84%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20대 그룹 비금융 상장사 136곳은 등기임원 446명에 대해 1인당 평균 12억2767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네이버 임원의 평균 연봉이 이들보다 2.54% 높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NHN 직원의 평균 임금은 7406만원에서 7635만원으로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상훈기자

뉴스 & 뉴스

대출 500억 넘는 대기업들 구조조정 리스트에

● 금융 당국이 7월부터 대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대출금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위험 평가에 들어갔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STX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퇴출 기업 결정은 7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30여 곳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황보희기자

갤S4 '듀얼 비디오 콜' 기능 국내 제품 누락돼 논란

●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4'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듀얼 비디오 콜'이 국내 제품에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듀얼 비디오 콜은 영상통화를 할 때 제품의 앞면 카메라와 뒷면 카메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화할 때 상대방과 자신의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제품에 이 기능이 빠진 이유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제품 기능을 과장한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상훈기자

NHN '라인' 23개월만에 가입자 1억5000만명 돌파

● NHN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이 1일 기준 출시 23개월 만에 글로벌 가입자 1억5000만 명을 돌파했다. 라인은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통해 가입자들끼리 무료로 음성통화나 메시지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1년 6월 출시됐다. 라인은 서비스 출시 19개월 만인 지난 1월 전 세계 가입자 수 1억 명을 달성한 바 있다.

/박상훈기자

61~75세 고령자 가입편한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대표 홍봉성)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고령자의 암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가입 나이 제한 또는 인수 기준 등으로 고령자들의 가입이 어렵고, 특화 상품마저 부족한 실정에서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서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080-951-8585 /김서님기자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080-951-8585

지난해 축제 참가자들이 구석기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 원시복장을 한 어린이가 구석기 바비큐를 맛보고 있다(오른쪽)

온가족 '구석기 힐링' 떠나요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명물' 구석기바비큐 즐기고 어린이 원시패션왕 선발에 맨손 물고기잡이 체험까지 어린이날 최고의 가족축제

이번 주말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직 나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경기도 연천군이 3일부터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일대에서 '제21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3~5일)를 개최한다.

올해는 '전곡리안의 숨소리'라는 주제로 행사가 펼쳐지며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적인 즐길거리는 어린이날 최고의 가족 동반형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규선(61·작은 사진) 연천군수는 "올해 축제는 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체험과 공연 행사를 분리해 전문성을 살렸다"며 "축제장과 더불어 원시자연 그대로의 주상절리와 탄종전망대, 열쇠전망대 등의 안보관광지 등을 둘러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연천=신화준기자

shin@metroseoul.co.kr

◆ 세계 최대 규모 구석기체험 축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는 구석기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 중 프로그램의 질이나 방문 관광객 수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의 규모와 위상을 갖춘 행사다.

올해는 3대 대표 프로그램인 '세계구석기체험마을', '구석기 퍼포먼스', '구석기 바비큐 체험' 등의 내실을 더욱 기하고 차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구석기 바비큐 체험은 구석기인들의 화식을 재연하는 것으로, 500명이 동시에 꼬치에 끼운 돼지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축제 대표 행사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이 밖에 시냥 체험 '구석기 창던지기',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구석기 고기잡아', 1박2일 캠핑을 하는 '구석기 힐링캠프', 구석기인들의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너도나도 전곡리안', 구석기 복장에 잘 어울리는 어린이를 선발하는 '전곡리안 패션왕' 등이 준비됐다.

◆ 어린이날에 꼭 맞는 프로그램들

축제 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고릴라와 미용이 등 축제 캐릭터들이 펼치는 '전곡리 음악대'를 비롯해 특별 공연 '울랄라의 옛날옛적에', 마술공연 '더 매직', 타악 퍼포먼스 '아프리카 타악 공연' 등 각종 공연들이 축제장 곳곳에서 쉼없이 펼쳐진다.

여기에 다양한 애완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미니동물원', 동굴에 벽화를 그리는 '황토동굴벽화', 숨겨진 공룡 알을 찾아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공룡 알을 찾아라', 연천과 구석기시대에 대한 퀴즈를 푸는 '연천구석기골든벨', 농촌의 문화와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농경생활문화체험' 등도 놓치면 아쉬운 프로그램이다.

◆ 감탄 자아내는 루티크형 전곡선사박물관

축제장 바로 옆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www.jgpm.or.kr)은 이국적인 은빛의 외형만큼이나 연천을 찾았을 때 놓칠 수 없는 명소다.

특히 상설전시관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7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의 인류와 동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복원·전시해 어른들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김 군수는 "연천은 구석기유적지를 비롯해 재인폭포, 경순왕릉, 숭의전, 남한 유일 고구려 3대 성터 등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방문한 뒤 다시 찾는다면 숨겨진 매력을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날짜: 5월 3~5일
- 장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연천전곡리유적 일원
- 문의: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031)839-2561~3, 2568

연천이 자랑하는 민물 매운탕

연천군은 우리나라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해 일교차가 커 농작물이 옹골지게 여문다.

연천 콩은 예전부터 명성이 높았고, 율무의 경우도 국내 주산지다.

이를 활용해 연천군에서 연천콩을 이용한 두부 요리와 율무막걸리로 구성한 '왕건밥상'을 개발, 향후 농촌체험마을의 체험객 식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금 연천을 찾는다면 민물고기 매운탕을 추천한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수되는 지점인 연천은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연천읍 고문리 '불탄소기든'(031-834-2770)의 매운탕(사진)은 민물고기를 꺼리는 이들에게도 거부감 없는 맛이다.

메기와 쏘가리 참게, 민물새우 등을 넣고 끓여낸 국물에 수제비를 곁들이면 밥 한 그릇은 금세 사라진다.

이와 함께 연천에는 이북 음식인 초계탕을 잘하는 집이 많다.

청산막국수(031-835-6447) 초계탕의 경우 퓨전형태지만 동치미국물과 닭육수에 닭고기살과 각종 샐러드용 야채를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여름을 앞두고 입맛을 살릴 수 있다. 건더기를 다 먹고난 뒤 말아먹는 막국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신화준기자

구석구석

◆제17회 기장멸치축제
- 장소: 부산 기장군 대변항 일원
- 일시: 5월 2~5일

봄철 생어기인 늦봄 열리는 기장멸치축제는 멸치회 무료 시식을 비롯해 어선 해상 퍼레이드, 맨손 활어 잡기, 소방물 분수쇼, 해상 불꽃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리가 준비돼 있다. 기장 멸치를 이용한 가공식품 판매장과 풍물 장터가 열린다. 기장 8경으로 유명한 장안사 계곡, 죽도, 소학대 등 축제 장소 인근의 관광지도 빼어나다.

◆2013 조선통신사 축제
- 장소: 부산 용두산 공원
- 일시: 5월 3~5일

조선통신사 일본사 행렬재현 등 역사재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한 '조선통신사의 밤' 공연과 시민과 함께하는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 국제 학술 심포지엄, 한·일 뮤직 콘서트 등 각종 학술·문화 행사로 구성됐다. 축제 기간 중 용두산공원 미술전시실에는 1711년 통신사 행렬을 그대로 재현한 닥종이 인형 341개가 전시될 예정이다.

◆제47회 여수거북선축제
- 장소: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
- 일시: 5월 3~6일

이순신 장군이 영남 지방을 구하기 위해 첫 출정했던 1592년 5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이맘때 열리는 여수거북선축제는 올해 '삼도수군 통제營의 두드림'을 주제로 임진왜란 전관사를 여수지역의 향토 예술인 길놀이로 구성한 '통제영길놀이', 거북선을 소재로 한 그리기·만들기 한마당,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용굴다리기 등이 진행된다. /권보람기자 kwon@

star bag

"K-팝 전설" 빌보드 주목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잡지 빌보드가 조용필의 19집 헬로 를 집중 조명했다

빌보드닷컴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용필이 싸이를 K-팝 핫 100 차트 1위서 끌어내렸다 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용필은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며 '창밖의 여자' '촛불'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 대표곡들을 소개한 뒤 "미국의 영향을 받은 팝 록에서 한국 전통 음악과 트로트까지 장르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음악적 시도를 했다 '한국의 마이클 잭슨'으로 언급된다"고 전했다

자동차 보험 광고모델 나서

박신혜가 자동차 보험 광고 모델로 나선다

소속사는 1일 "최근 더케이손해보험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 상품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에듀키 광고 촬영을 마쳤다"고 전했다 더케이손해보험 측은 "뛰어난 연기력과 밝은 이미지로 신뢰도가 높아 브랜드와 잘 어울렸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박신혜는 올 하반기에 방송될 드라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 상속자들'에 출연한다

JYP와 결별 "불화 없다"

래퍼 산이가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에서 나온다

JYP는 "이번주 중으로 산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며 "충분한 협의 아래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이는 자신의 팬카페에 "(소속사와) 안 좋은 일은 없다 서로 아쉽지만 모두가 웃는 얼굴로 헤어졌다"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언더그라운드 출신인 산이는 2010년 JYP와 전속계약을 하고 그해 9월 싱글 '에브리바디 레디?'로 정식 데뷔했다

화보서 싱그러운 봄처녀

카라의 니콜이 화사한 봄 패션을 과시했다

니콜은 녹색 헤림 스타일이 주제인 한 패션 월간지 화보에서 물오른 미모를 뽐냈다 특히 매끈한 허리선을 자랑해 네티즌으로부터 "날씬한 봄 처녀"란 찬사를 이끌어냈다

<희로애락>

"한풀이하듯 4종 연기 했죠"

주말극 '돈의 화신' 끝낸 강·지·환

SBS '돈의 화신'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지환(36)은 피곤한 몸 상태를 잊을 만큼 기분이 좋다고 털어놨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소속사와의 오랜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어렵게 복귀한 드라마가 호평과 인기를 모두 얻으며 끝났기 때문이다 그는 "연기로 평가받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극·코미디 쉴새없이 오가기

지난 한 해 대중 앞에 서지 못해 쌓였던 연기에 대한 갈증을 이번 드라마에서 원 없이 풀었다 극중 비리 검사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는 이차돈 역을 맡아 정극과 코미디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변화무쌍한 캐릭터에 옷을 입혔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오열하고 복수의 대상인 지세광(박상민)과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복재인(황정음)에게 귀엽게 질투하거나 하얀 소복에 긴머리 가발을 쓴 채 "나는 조선의 국모다"를 외쳐 웃음도 줬다

"한 인물이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기할 때 희로애락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작품을 만나 행복했어요 한 장면을 꼽는다면 차돈이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캐릭터 변신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결말은 해피엔딩이었다 지세광은 이차돈에 의해 그동안의 죄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뒤 은비령(오윤아)이 탄 독약을 마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반면 이차돈과 복재인은 행복하게 결혼에 골인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닌 법의 심판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결말 같아요 그러나 실제의 저라면 차돈이처럼 이성적으로 복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힘들지 않았을까요."

한편 "이전에는 연기 호흡을 위해 파트너에게 밥도 많이 사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다"면서 "정음씨와도 친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내가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없어 파트너를 잘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미안해했다

#연기인생 2막 지켜봐 주세요

강지환이 열연에 힘입어 복귀 전까지 따가웠던 주위의 시선은 쏙 들어갔다 왜 전 소속사와의 연예 활동 정지 가처분 소송 중에도 강지환이 꼭 캐스팅됐어야 했는지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납득했다

"11년간 배우로 살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작품이에요 논란 속에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주위 시선 때문에 많이 조조했지만, 배우로서 강지환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는 연기로 승부해야 한다고 믿었죠 드라마 시작 전에 자커뮤 달리 고 호언장담한 약속을 지키게 돼서 뿌듯해요."

한생간이 믿어준 제작진과 팬들, 네티즌의 격려 댓글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드라마가 중국 최대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 '유쿠'에서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누르고 조회수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내 인기도 높아졌다

그러나 복귀까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1년간은 연기를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기다림만 반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작품 투자가 안 돼서 엎어진 일도 있었다 20대를 다 바쳐서 연기해왔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단 매니지 특별상을 주장한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활동 정지 가처분 소송건은 강지환의 승소로 끝나 한시름 놨다 현재는 1인 소속사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흔들리긴 했지만 스스로 떳떳했기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니 좋은 일이 오네요 이번 작품을 계기로 연기 인생 2막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몇 막이 더 열릴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이 되든 열심히 연기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박준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동양어뮤즈먼트(이)을 디자인/박선영

'팔색조' 검사역… 이 작
소속사 분쟁 딛고 드라마
어머니 죽음 오

백남준 예술 알리러 에든버러 간다

백남준아트센터 페스티벌 초청 받아
현대무용단 YMAP·김형수 작가도

백남준아트센터·YMAP·김형수 작가가 8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예술축제 '2013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EIF)'에 공식 초청돼 한국의 예술을 세계에 알린다.

1947년 시작된 EIF는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무용·클래식·현대음악 등 10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성장했다. 지난해부터 시각예술과 영화·애니메이션, 설치예술 등으로 참여영역을 확대했다.

올해 EIF의 주제는 '아트 & 테크놀로지'다. 백남준아트센터와 현대무용단 YMAP(대표 김효진), 김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한국 단체가 공식으로 초대받은 것은 2011년 극단 목화의 '템페스트'와 안은미 무용단이 공연한 이후 두 번째다.

한국 홍보를 위해 서울을 찾은 EIF 예술감독 조너선 밀스는 "2년 전 한국 공연을 본 관객들은 한국 예술의 높은 수준에 감탄했다"며 "올해는 또 다른 한국 작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와 한국 간의 이해와 협업을 통해 보다 깊은 수준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조너선 밀스 예술감독, 김효진 안무가, 김형수 작가(왼쪽부터)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에든버러대학 '탈봇라이스갤러리'와 공동으로 '백남준의 주파수로: 스코틀랜드 외전'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백남준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YMAP는 1950년대 TV쇼 프로그램, 영화 필름의 자료 화면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한국 춤과 접목시킨 '바담 프리덤' 공연을 펼친다. 김형수 작가는 에든버러의 중심지인 어셔홀 광장과 페스티벌 극장에 대규모 미디어 스킨을 설치해 공공 예술로서의 미디어아트를 구현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춤사위에 물드는 대학로

국제현대무용제 17일 개막 … 18편 선봬

2013 국제현대무용제(이하 MODAFE)가 17~26일 아르코예술극장과 예술극장 등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MODAFE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 축제로 32회째를 맞는 올해는 '댄스가 삶이고, 삶이 바로 댄스다'라는 의미에서 주제를 '댄스, 라이프(Dance, Life)'라고 정했다.

벨기에의 세계적인 안무가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가 데미안 잘렛과 함께 선보이는 '바벨(BABEL·사진)'(17~18일 아르코예술극장)을 시작으로 해외 초청 무대 4편, 국내 초청 무대 12편 등 총 18편이 관객을 찾아간다.

가장 관심을 끄는 작품은 개막작 '바벨'과 폐막작 '쓰리 랩스(Three Laps)'다. 바벨은 볼프스부르크 최고 안무가상, 니진스키 젊은 안무가상 등을 수상한 셰르카위의 신작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바탕으로 언어와 국가, 종교의 관계를 재해석했다.

50대의 안신희와 40대의 이윤경, 30대의 차진엽 등 세대별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무용수 3명이 힘을 뭉친 쓰리 랩스는 그리스의 고전 중 여인들의 이야기를 처절하게 표현한 '트로이 여인들'을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홈페이지(www.modafe.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765-5352

/[illegible]기자

대선주조
Ci은 부산이다
부산야구가 이겼을 때 힘차게 부산갈매기를 외쳤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에 목청껏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수놓은 화려한 불꽃의 향연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산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는 시원-
부산은 시원입니다
시원은 부산입니다.
천연원료 토마틴으로
아침이 상쾌한 시원
Ci
(사례품)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21 What color is your purse? 사물 묘사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의 핸드백은 무슨 색인가요?
저 여행 가방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이 원탁은 무게가 45파운드 정도 나가요.
당신은 어떤 크기의 여행 가방들을 갖고 있어요?
이 소재는 촉감이 부드러워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 color is your purse?
How much does that suitcase weigh?
This round table weighs about forty-five pounds.
What size suitcases do you have?
This material feels sof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무슨 색 is your purse?
B It's light red.

정답 What color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 much does that [table / bag] weigh?

2 This cloth feels [soft / hard and dry].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Business English 데미덱 이메일사전

자기 소개할 때
Introducing oneself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김입니다.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arah Kim.
I'd like to introduce myself. I am Sarah Kim.

저는 덴발 부동산 대표, 해롤드 리입니다.
I am Harold Lee, and I represent Denval Real Estate.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건 권입니다.
I'm not sure we've met before. I'm Morgan Kwon.

링크드인으로 연락은 했으나 직접 뵌 적은 없었지요.
We're connected on LinkedIn, but we've never met in person.
* LinkedIn (링크드인) 미국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맥 사이트

이렇게 실제로 서로를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make your acquaintance.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ccording to the *Harton Fashion Chronicle*, many designers _______ green and brown fabrics for their autumn collections this year.

(A) to use (B) are using
(C) had been used (D) are used

02 Ms. Choi is not only a good public speaker _______ also a talented writer.

(A) both (B) if
(C) nor (D) but

01. 하튼 패션 크로니클에 따르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올 가을 컬렉션에 녹색과 갈색의 천을 사용하고 있다.
해설 문장의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빈칸 뒤에 목적어 green and brown fabrics가 있으므로 능동태인 (B) are using을 쓴다.
어휘 fabric 옷감, 천, 직물
정답 (B) are using

02. 최 씨는 훌륭한 연설가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해설 not only와 함께 짝을 이루어 'A뿐만 아니라 B도'를 의미하는 상관접속사인 but also를 쓴다.
어휘 public speaker 연설가 talented 재능 있는
정답 (D) but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How 의문문

How do/does ~로 물으면 수단이나 방법을 묻는 의문문이 되지만,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many/much (얼마나 많은), How long (얼마나 오래) 등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Q: How often do you clean your house or apartment? 당신의 집이나 아파트를 얼마나 자주 청소하나요?
A: I clean my hous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every two days. 이틀마다

Q: How many times do you eat out? 얼마나 많이 외식을 하나요?
A: I eat out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once or twice a week. 일주일에 한두 번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이상

Q: How do you go to school or work? 학교나 직장에 어떻게 가나요?
A: I go to school by bus. 버스를 타고
by subway 지하철을 타고
by car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큰믿음교회로 오십시오!!!

지금 엄청난 치유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성회의 주 강사인 김옥경 목사님의 부군이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전문의들과 수련의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큰믿음교회의 치유사역은 진짜입니다.

1. 의사들을 놀라게 한 치유의 기적들!

좌측 귀의 진주종으로 3번에 걸친 대수술 후 중이, 내이를 비롯한 청력에 관계된 모든 구조물을 드러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분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들게 되어 의사가 믿을 수 없다며 놀라워하고,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며 온몸의 뼈가 굳은 선천성뇌성마비 환자가 처음으로 걸어 장기간 이 환자를 봐왔던 의사가 어디서 이런 치료를 받았는지 놀라워하고,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던 수십 개의 미세 유방석회질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슴에 있던 동전크기의 종양이 초음파 검사 상 사라져 의사가 믿어지지 않는다며 놀라워하고, 고관절골절로 인공관절을 삽입하였으나 또 다시 골절되어 움직일 수 없던 분이 걷게 되어 병원에서 뼈가 붙었다는 판정을 받고, 안와골절로 큰 수술을 받은 후 눈에 있는 6개의 근육 중 2개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복시가 생겨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복시가 사라져 의료진들이 2차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2.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의 극적인 치유!

폐렴증과 급성신부전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다장기부전으로 생명이 위독했던 분이 치유되어 퇴원하고, 수술불가능한 부위의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분이 온전히 치유되어 퇴원하고,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지가 마비되었던 분의 마비가 풀리고, 20년 전 사고로 우측 반신마비가 와서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던 분의 마비가 풀려 걸을 뿐 아니라 달리고, 무릎연골이 닳고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했으나 걷지 못하던 분이 걷고, 치료 불가능한 심방중격결손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분이 숨찬 증상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주행 중인 차량에서 떨어져 입은 뇌손상으로발병한 외상성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분이 6년 만에 정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선천성만곡족과 평발로 골반이 틀어져 양쪽 다리길이가 다르고 걷기 힘들던 분의 골반이 맞춰져 다리 길이가 같아지고 발의 형태가 정상이 되고, 30년 전 생긴 좌측 턱의 혹이 사라져 비대칭이던 얼굴이 바르게 돌아오고,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감각이 사라진 등근육의 감각이 돌아오고, 관절원판이 마모되어 발생한 악관절 디스크 증상이 사라지고,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짧아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던 분이 바닥을 정상적으로 디디게 되고, 우측 어깨근육의 심한 손상과 인대파열로 수술조차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분이 팔을 자유롭게 쓰게 되고, 가슴부위가 찍히는 사고를 당해 우측 갈비뼈 전체가 뒤로 뒤틀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분의 갈비뼈 형태가 정상이 되고, 어금니 4개를 모두 발치한 후 심하게 흔들리던 다른 치아들이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3. 청력과 시력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창조적인 기적들!

중이염을 앓은 후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는데 69년 만에 소리를 듣게 되고, 3살 때 앓은 말라리아로 왼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67년을 살아온 분이 듣게 되고, 70년 전 왼쪽 고막이 터진 후로 큰 소리도 잘 들을 수 없던 분이 듣게 되고, 20년 전 사고로 오른쪽 고막이 터져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분이 듣게 되고, 20년간 만성중이염으로 양쪽 귀의 고막이 없어지고 이소골이 녹아내려 수술을 받았지만 보청기 없이 대화 불가능한 분이 듣게 되고, 6살 때 오른쪽 귀에 목주알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고막이 손상된 후로 60년이 넘도록 큰 소리 외에는 거의 들을 수 없던 분이 듣게 되고, 2살 때 고열을 앓은 후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 46년 동안 수화로만 의사소통을 하신 분이 듣게 되는 등 많은 분들이 치유되어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총 9번에 이르는 녹내장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왼쪽 눈을 완전 실명했는데 2m거리 사람의 이목구비까지 확실히 보게 되고, 눈앞의 사물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고도근시로 5살 때부터 안경을 써온 분이 안경을 벗고, 황반변성으로 실명위기까지 온 왼쪽 눈의 시력이 치유되고, 12년 전 오른쪽 눈의 망막박리로 겨우 빛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사물을 보게 되고,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았지만 안경을 쓰고도 시력이 0.2이상 나오지 않던 분이 멀리 있는 사물까지 보게 되고, 백내장으로 시력을 상실한 분이 3m거리의 물체를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4.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온전한 치유!

척추협착증으로 5분 이상 서있기도 힘들만큼의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고, 20년 된 심한 척추측만으로 통증과 함께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몸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류머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이 치유되고, 걷기조차 힘들던 파킨슨병이 치유되어 안정적으로 걷고, 인대강화주사, 신경성형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던 디스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활동성 간염을 지닌 B형간염 보균자가 비활동성 간염으로 전환되면서 간수치가 정상이 되고, 급성간염에 발병된 만성간염으로 5년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분의 수치와 초음파 소견이 정상이 되고, 중증지방간이 회복되고, 만성비염과 부비동염으로 인한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만성소화불량, 신경성위염으로 인한 증상이 사라지고, 식도협착증으로 식도를 넓히는 시술을 받았으나 반복되는 역류와 통증으로 고통 받던 분의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갑상선의 혹이 사라지고, 갑상선 기능저하가 회복되고, 6년 된 전신 피부건선과 가려움증이 모두 사라지고, 기관지 천식과 만성기침이 사라지고, 수많은 디스크와 관절염이 치유되었습니다!

5. 부인과 질병과 불임의 놀라운 치유!

수년간 불임으로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던 분과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분 등 여러 사람들이 임신하게 되고, 직경 6cm가 넘는 자궁근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30년 된 방광염으로 지속되던 빈뇨증상과 잔뇨감이 사라지고,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 받던 분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리주기마다 극심한 생리통으로 고통 받던 분의 생리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 치유를 통한 삶의 놀라운 변화들!

10년 전 중풍이 발병한 뒤 언어장애로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고, 신경이 죽어 움직일 수 없던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피부괴사로 검게 변했던 피부가 재생되어 새 살이 돋아나고, 뇌출혈 수술 후 뇌기능저하로 대화가 어렵고 기억력도 심각하게 감퇴된 분이 대화가 가능해지고 기억력이 크게 회복되고, 장애진단을 준비할 정도로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가진 분의 기억력이 회복되고, 갑작스런 딸의 죽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원인 모를 하반신 마비가 사라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선배들의 폭력으로 뇌수술을 받은 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두통이 사라지고, 극심한 아토피로 얼굴이 온통 울긋불긋하고 온 몸의 피부가 딱딱하게 굳으며 진물이 흘러 잠을 잘 수 없던 분이 아토피가 완전히 치유되어 매끄럽고 촉촉한 정상피부로 돌아오고, 매일 10시간 넘게 컴퓨터 게임을 해서 목과 허리에 심한 디스크가 생긴 게임중독 환자가 중독에서 해방되고, 30년 된 심한 선천성다한증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분이 치유되고, 중풍을 앓는 시어머니를 9년간 간호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가 즉각 풀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공짜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다음 치유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큰믿음 정기 치유성회

시간: 금요일 오후 1시 | 장소: 서울 큰믿음교회

*전국 지교회에서 동시 생중계 합니다

*교회 행사시, 종합집회 매월 마지막 주에는 치유성회가 없습니다

큰믿음 예언 전도학교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 큰믿음교회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 예언을 해드립니다

김구라 '화신' 새MC

제작진 "사람 중심 토크 강화"

김구라가 SBS 예능 프로그램 '화신-마음을 지배하는 자'의 새 MC로 합류한다.

신동엽·윤종신·김희선이 이끌어 오던 이 프로그램은 14일 방송부터 김구라를 포함한 4MC 체제로 진행된다. 김구라의 SBS 복귀는 2012년 4월 '스타 주니어쇼-붕어빵' 하차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제작진은 "김구라의 합류와 더불어 기존의 설문조사를 주제로 한 토크에서 완전히 탈피해 사람 중심의 토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막말 논란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던 김구라는 지난해 9월 케이블 tvN '현장토크쇼-택시'로 복귀한 이후 '화신'까지 6개 프로그램 MC를 맡으며 전성기의 인기를 되찾았다. 지난달 KBS2 '이야기쇼-두드림'에도 출연해 지상파 복귀는 MBC만 남겨뒀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복귀 불가 방침으로 인해 컴백이 늦어졌지만, 친정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 제작진과 출연진이 그의 복귀를 원하고 있고 신임 사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복귀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영화 '애프터어스' 홍보차 윌 스미스 아들과 7일 방한

할리우드 톱스타 윌 스미스가 아들 제이든과 함께 세 번째로 한국을 찾는다.

30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애프터 어스'의 국내 수입·배급사인 소니 픽쳐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코리아는 "주연을 맡은 스미스 부자가 7일 내한해 기자회견과 레드카펫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

2002년과 지난해 '맨 인 블랙 1'편과 3편의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윌 스미스는 '애프터 어스'에서 아들과 호흡을 맞춰 멸망한 미래의 지구에 불시착한 전사 부자를 연기한다.

직장의 신 / 오자룡이 간다 / 무한도전

드라마도 예능도 해고 소재 왜?

불경기에 고용불안 반영… 직장인의 씁쓸한 자화상 '공감백배'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안방극장 속 근로자들은 처량하기만 하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감원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뤄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직장의 신'은 만년 과장 고정도(김기천)가 권고사직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그렸다. 정리해고 명단에 오른된 고 과장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고 차갑기만 하던 미스김(김혜수)은 고 과장의 이 같은 노력에 눈시울을 적셨다.

MBC 일일극 '오자룡이 간다'도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이사 진용석(진태현)과 오자룡(이장우)의 대립을 다루고 있다. 극 중 오자룡의 부서 상사는 정리해고 당사자로 지목당한 뒤 시위에 나서고, 진용석은 불법적인 시위 진압을 지시해 공분을 일으켰다.

예능 프로그램도 직장인들의 우울한 자화상을 일리는 데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주말 MBC '무한도전 – 무한상사'는 정준하를 정리해고의 희생양으로 설정해 예능 프로그램으로선 보기 드물게 진한 슬픔을 안겨줬다.

최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이처럼 앞다퉈 직장 내 구조조정 칼바람을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는 데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 움직임 속에서도 유독 불경기에 울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속사정이 깔려있다.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의 경색까지 맞물려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샐러리맨들의 속내가 대중문화 콘텐츠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 생활 16년째인 서재훈씨는 "요즘 드라마를 보면 남 일 같지 않아 우울하지만 비교적 설득력 있게 묘사되고 있어 공감할 때가 많다"며 "다만 제작진이 흥미 위주로만 다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극적 재미를 위해 너무 과장하기보다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균형감 있게 그려주기를 원한다"고 주문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타이틀곡>

시크릿, 내가 제일 잘나가 '유후'

음원차트 1위 기록… 걸그룹 삼파전 판정승

시크릿이 데뷔 동기들과 벌인 걸그룹 삼파전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지난달 30일 쇼케이스를 열고 공개한 네 번째 미니앨범 '레터 프롬 시크릿'의 타이틀곡 '유후'가 음원차트를 강타했다. 1일 엠넷 벅스·올레뮤직·소리바다·네이버뮤직·다음뮤직 등 6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타이틀곡 외에 '온리 유' 'B O Y' 등 수록곡들도 상위권에 올라있다.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시크릿' '시크릿 유후' '시크릿 뮤직비디오' 등의 검색어가 오르며 화제를 몰고 있다. '유후'는 섹시 카리스마로 외도했던 시크릿이 귀여운 깜찍하고 상큼하고 발랄한 패턴으로 돌아온 곡이다.

한편 나를 앞서 출시돼 차트를 휩쓸었던 포미닛의 신곡 '이름이 뭐예요?'는 강세가 한풀 꺾였지만 '유후'를 바짝 뒤쫓으며 모든 음원 차트에서 2~5위를 기록 중이다.

29일 공개된 티아라의 신곡 '전원일기'는 벅스·올레뮤직·소리바다에서만 4위에 올라 두 팀과 격차를 보였다.

걸그룹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넬줄' 나인뮤지스도 9일 두 번째 미니앨범 '와일드'로 컴백한다. 1일 공개한 티저 이미지는 '19금'을 연상케 하는 여성의 상반신을 노출한 파격적인 콘셉트로 눈길을 끌었다. 소속사는 "이 이미지의 주인공은 9명의 멤버 중 한 명"이라고 밝혀 궁금증을 더했다. /유순호기자 sunn@

걷다보면 '건축학개론' 속 서연의 집 앞

제주관광공사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에서 빼어난 해안 경승지 남원 큰엉이 있는 올레 5코스를 5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고소로 추천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안 산책로

올레 5코스는 서귀포시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꼽히는 큰엉 경승지 산책길을 지나 쇠소깍까지 이르는 길로 바당 올레와 마을 올레를 따라 걷게 된다.

올레 5코스의 시작점인 남원포구에는 올레 안내소 및 남원 큰엉 산책길이 있다. 남원 큰엉 산책길은 동쪽의 구럼비부터 서쪽 황토개까지 2.2km에 걸쳐 조성된 해안 산책길이다.

단어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엉'이란 제주도의 방언으로 바닷가나 절벽 등에 뚫린 바위그늘(언덕)을 말한다. 아름다운 해안을 기르면서 커다란 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언덕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진정한 엉을 보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보다 바닷가로 내려가서 올려다 봐야 한다.

웰컴 투 '올레 5코스'

10m 높이 절벽 이어진 해안 경승지 남원 '큰엉' 이국적 '위미포구' 지나 쇠소깍 비경에 또 감탄

10m 이상인 높은 절벽을 따라 가다 보면 주상절리 층도 볼 수 있는데 그 빼어난 해안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인지 제주도 사람들은 이곳을 제주 최고의 해안 경승지로 꼽는다.

남원 큰엉을 지나 마을길과 해안길을 지나가면 동백나무 군락지와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위미포구를 만나게 된다. 위미포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영화 '건축학개론' 촬영 장소인 서연의 집이 나오는데 영화 흥행 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올레 5코스의 마지막 지점인 쇠소깍(사진)은 제주도의 숨겨진 비경으로 소가 누워있는 형태인 감이 한라산 끝자락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요돈한 담수와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맑은 용천수 그리고 해안 절경이 길 내주는 올레 5코스 길 지점이지 올레 6코스의 시작점이다.

◆제주의 문화 '제주 돌담'

예로부터 돌이 많아 '삼다도'라 불린 제주도에서는 온갖 돌담들이 어우러져 거대한 돌담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돌담 띠를 이으면 10만 리까지 간다고 해서 중국 만리장성에 빗대 '흑룡만리(黑龍萬里)'라고도 했다.

이러한 돌담들은 대부분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들을 기저다가 쉽게 쌓은 것이 아니다. 알밴이 깨고 깎고 다듬은 돌 하나하나에 사람의 손길이 배어 있으며 돌마다 모난 부분끼리 서로 맞물리고 바람을 갈라내고 견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도 담겨있다.

이제랑 제주 돌담은 제주의 바람과 어우러져 푸른 하늘, 에메랄드 빛 바다, 초록 들판 그 사이를 나지막하게 흐르는 선으로 검게를 자으며 환상적인 풍광을 만들고 있다.

◆비 오는 날 운치 있는 관광코스

봄비가 와도 제주 여행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비가 내리면 더욱 운치 있는 코스들이 제주에는 많다. 제주관광공사가 빗비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추천했다.

동부권 관광코스

제주시→돌문화공원→에코랜드→중식→세계박물관→소미드그리드홀보관→해월종지단지드라이브→4·3평화공원→마방목지→석식→숙소(제주시)

남부권 관광코스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서귀포 잠수함, 마라도 잠수함→영또폭포 또는 천지연폭포→중식→이미지식물원→제주국제평화센터→컨벤션센터(내국인 면세점 쇼핑)→석식→숙소(제주시 또는 중문지역)

서부권 관광코스

중문지역(숙소)→사계해안도로→소인국테마파크→녹차박물관→중식→제주현대미술관→신창해안도로(한림공원)→한림공원→애월해안도로→숙소(제주시)

/박지원기자

제주어 시 감상

<제주어>
니 귀 반듯헌 거들
-고훈식

니 눈헌 짓 헌 거
그만어 내불지 아니 헌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앙시난

니 착헌 일 헌 거
아는 사름은 다 안다
애인 시난 이티후제 받북헌다

<표준어>
올바른 마음
-고훈식

너 못쓸 짓 한 거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너 착한 일 한 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잊지 않으니 반드시 복을 받는다

제주 사진, 영상 무료 제공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사진과 영상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갤러리'를 운영한다.

갤러리는 제주 관광 테마별 사진, 홍보 동영상, 투어 스토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제주 해외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서비스한다. 콘텐츠는 제주 관광 홍보 공공 연무, 보도용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gallery.ijto.or.kr

나라사랑 디지털 3분영화제

출품 기간

2013. 05. 01(수) – 2013. 05. 31(금)

| 네티즌투표 | 2013.06.04(화) ~ 06.17(월)
| 심 사 | 2013.06.18(화) ~ 06.21(금)
| 발 표 | 2013.06.24(월)
아프리카TV 영화제 공식 페이지 및 개별 통보

출품 자격

개인 및 단체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출품 주제

〈내가 생각하는 나라사랑이란?〉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유형식으로 구성

1) 6·25 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국군 장병 등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
2)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 준 UN 참전국에 대한 감사
3)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출품 방법

출품자는 다음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여 아프리카TV 내 http://seoulbohun.afreecatv.com로 업로드
1) 출품신청서 [시놉시스/감독사진/캐쳐스틸] 2) 작품

출품 규격

- 출품작의 규격은 400MB 이하의 파일
- 디지털로 제작 없이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 (mov, mp4, wmv 등)
- 시간 : 약 3분 이내의 단편 형식
-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선정 · 폭력 · 비방 · 정치, 광고 등의 목적 배제)
- 출품작은 상업화(시범허)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타 영화제에 출품했던 작품에 대해서도 응모 자격이 주어지나 수상하지 않은 작품이거나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차후 문제 발생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출품작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작품에 한함

시상

시상	부문	
	청소년	일반
대상(부문통틀 1팀)	국가보훈처장상 + 부상품(삼성 센스 노트북)	
금상(부문별 1팀 / 총 2팀)	서울지방보훈청장상 + 부상품(미러리스 카메라)	
은상(부문별 1팀 / 총 2팀)	서울지방보훈청장상 + 부상품(홈씨어터)	
동상(부문별 1팀 / 총 2팀)	서울지방보훈청장상 + 부상품(삼성 LED 모니터)	

주최 국가보훈처 주관 VISION 후원 Daum 협찬 afreeca metro 문의 공모전 사무국 02)3143-7710

디테일 숨쉬는 셔츠 찾았다!

로얄비엔비 44주년 기념 루이까또즈 셔츠 등 스페셜 패키지 선봬

남성셔츠 전문 브랜드 로얄비엔비(B&B)가 창립 44주년을 맞아 기존의 셔츠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인다.

루이까또즈 셔츠는 새로운 디자인과 이탈리아 현지 주문 생산 라인 등을 신설하고 더욱 젊어진다. 이번 시즌부터 소개하는 물론 디테일과 컬러를 더욱 다양하게 적용해 세련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피에르가르뎅 셔츠는 유러피언 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화려한 색상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파리지앵의 감성으로 과감해진 패턴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모던한 디자인까지 제안한다.

이와 함께 로얄비엔비는 오랫동안 브랜드를 사랑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큰 할인폭의 세트 상품을 출시했다.

루이까또즈는 셔츠(블루 또는 화이트) 패션 양말 2족 손수건으로 구성된 스페셜 패키지를 9만

3000원에 내놨다. 피에르가르뎅은 솔리드 셔츠(13만8000원=3종 택1)와 프린트 반소매 셔츠(16만5000원=2종 택1)로 묶은 상품을 14만4000원에 선보였다.

로얄비엔비 안동한 대표는 "44주년을 맞아 정통성을 지키면서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트렌드를 리드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선보인 스페셜 구성은 가격 대비 훌륭한 퀄리티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레스모아 명동중앙점 괌 항공권 경품 행사 레스모아가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규모 슈즈 멀티스토어 '명동중앙점' 오픈을 기념해 이색 퍼포먼스로 즐거움에 어울리는 다양한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명동중앙점은 2개 층 규모로 20여 개 브랜드의 슈즈 2000여 종을 한곳에서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초대형 숍이다. 5월까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괌 층층 제주 왕복권을 선물로 증정한다.

떡갈비 사면 너비아니 덤으로

강강술래 신제품 출시기념 이달말까지 39% 할인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신제품인 가정간편식 떡갈비 출시를 기념해 파격 이벤트를 벌인다.

모든 매장에서 5월 말까지 '칠칠한우떡갈비'(1세트·360g)를 사면 '흑임자한돈너비아니'(1세트·360g)를 덤으로 증정하며, 39% 할인된 1만9500원에 판매한다.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떡갈비(2세트·720g)를 사면 너비아니(2세트·720g)를 무료 증정하며 39% 할인된 3만9000원에 무료 배송해준다.

칠칠한우떡갈비는 정육 부위나 잡육을 사용한 시중 제품과 달리 100% 한우 갈비살만을 사용해 떡갈비 요리의 참맛을 선사한다. 흑임자한돈너비아니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두뇌 활성을 돕고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허약 체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흑임자를 접목한 웰빙 푸드로 국

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돼 있다.

두 제품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최첨단 위생시설에서 생산됐으며 두께도 3cm에 달해 식사 대용은 물론 간식과 술안주, 캠핑 먹거리로도 잘 어울린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이달 말까지 건강 선물로 제격인 100% 한우사골곰탕과 갈비맛 최고 기육포는 30% 할인 판매한다. 쇼핑몰이나 전화로 구매 시 각각 선착순 50명에게 도깨비방망이와 지갑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모든 매장에서는 어린이날(5일)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버블껌이나 도깨비방망이 떡갈비스테이크를 무료 제공한다(단 소진시까지).

子의 간이식 받은 母 "이대병원 덕 새삶"

"기증자 안전할 것" 간센터 의료진 정성어린 설득 끝 수술 성공 '회복'

"이대목동병원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간센터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29일 퇴원을 앞둔 최명순(50) 씨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최씨에게 병마가 닥친 것은 2006년. 병원의 진단명은 원인 불명의 간경화였다. 이후 최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 배에 물이 차고 말에 어눌해지면서 성격이 변하는 간성혼수로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최씨에게 남은 희망은 간이식뿐이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먼저 간이식을 제의했고, 둘째 아들인 김영호(29)씨가 이미 결혼을 한 형 대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 간이식 적합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의 병으로 자식까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처럼 수술을 망설이던 최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의료진의 끈

이대목동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최명순씨가 퇴원을 앞두고 간이식팀 윤일중·이현국 흉근, 민석기 교수의 축하를 받고 있다.

임없는 설득과 병원 측의 지원이었다. 간센터 간이식팀(이현국·흉근 교수)은 생인 간 생체 간이식(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이식하는 고난도의 이식 수술) 수술 시 간 기증자의 안전은 물론 수술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했다.

결국 지난 4월 10일 수술을 받은 최씨는 특별한 합병증 없어 회복해 퇴원을 하게 됐다. 간을 제공한 김영호씨도 이미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전 퇴원을 마친 상태였다.

최씨는 "처음에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고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의 뛰어난 의료 수준과 정성, 친절한 간호, 격려와 지원 덕에 새 삶을 살게 됐다"며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현국 교수는 "간이식은 간 기증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생체 간이식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라며 "간암 환자나 간경화 환자의 경우 간이식은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현대백 '블랙컨슈머' 막는 안심약속제 도입

최근 서비스업종 근무자들의 인권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1일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 컨슈머'에 대한 예방 조치를 내놨다.

백화점 측은 상품 취급주의 정보를 담은 '상품안심카드'와 '선물교환증'을 영수증과 함께 자동으로 출력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원클릭 안심약속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품 취급주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환불기한을 넘겨 보상해달라는 등 억지 교환·환불 요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백화점 측은 "판매사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안효숙기자 hsjeon@

웅진플레이도시 어린이 무료입장

4~5일 이틀 4인가족 대상

가족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4~5일 이틀간 어린이를 동반한 4인 이상 가족이 워터파크·스파를 이용할 경우 어린이 1명의 입장료가 공짜다. 실내 눈썰매장은 보호자 1명당 어린이 1명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1+1 이벤트'를 진행한다(중복 할인 불가).

1층 로비에는 피아스페인팅 서비스와 키다리 피에로의 풍선 선물이 준비된다. 매표소 앞에서는 가족단위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선물 팡팡! 룰렛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웅진플레이도시를 방문한 어린이 선착순 5000명에게는 5월 안에 워터파크, 스파 또는 스키·눈썰매 중 하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휴분 이용권도 증정한다. 문의 www.playdoci.com 1577-5773 /김보람기자

류현진 12K! 콜로라도 넉다운

싸이(오른쪽)가 류현진으로부터 유니폼을 선물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AP 연합뉴스

ML 진출 최다 탈삼진… 6이닝 2실점 시즌 3승

괴물 류현진(26·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한 경기 최다 탈삼진 12개를 잡고 시즌 3승을 수확했다.

류현진은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6번째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잡고 3피안타 2볼넷 2실점으로 호투했다. 다저스는 류현진의 호투를 앞세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콜로라도를 6-2로 제압했다.

류현진은 이날 특유의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메이저리그 팀 홈런 4위(35개), 팀 타율 1위(0.285), 팀 득점 2위(139점)를 달리는 콜로라도 타선을 농락했다. 105개의 공을 던져 최고 구속이 150km를 찍었고, 평균자책점을 3.41에서 3.35로 약간 끌어내렸다.

1회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은 류현진은 3번 타자 카를로스 곤잘레스에게 체인지업을 던지다 기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허용했다. 시즌 4번째 피홈런이다. 그러나 4번 마이클 커다이어를 풀카운트 접전에서 바깥쪽 강속구로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고비를 넘겼다.

다저스는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2점씩을 뽑아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류현진도 1회 커다이어부터 4회 선두 타자 조시 러틀리지까지 8타자를 연속 범타로 처리하며 눈부신 호투를 이어갔다.

하지만 6회 심판의 아쉬운 스트라이크 판정 탓에 추가 점수를 줬다. 2사 1·3루 상황에서 커다이어를 상대로 몸쪽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직구로 삼진을 잡는 듯했으나 구심의 손은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류현진은 커브를 승부구로 던지다 2루타를 맞았다.

이날 류현진은 11타수 만에 메이저리그 첫 타점도 올렸다. 5-1로 앞선 3회 2사 1·2루에서 우전 적시타를 때려 2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3타수 1안타를 때린 류현진은 시즌 타율 0.333(12타수 4안타)을 유지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1일

■잠실

KIA	200	212	100	8
두산	100	000	000	1

■대전

롯데	000	112	000	4
한화	102	000	000	3

■대구

넥센	200	011	400	8
삼성	000	002	201	5

■마산

LG	002	010	030	6
NC	100	500	10X	7

프로축구 전적 1일

제주	2	1	성남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1일

서울	2	2	부리람

스포츠브리핑

■ 박주영 아스널 방출명단 포함"

스페인 셀타비고에서 뛰는 박주영(28)이 원소속팀 아스널의 방출 선수 명단에 포함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코트오프사이드는 1일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이 새 공격 자원을 영입하기 위해 박주영과 니클라스 벤트너, 마루아네 샤마크를 올여름 이적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벵거 감독은 선수 급료 지출을 줄이려고 이들 3명에 대한 헐값 이적 제의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약물사용 의혹 비제이 싱 면죄부

금지약물 사용 의혹을 받은 비제이 싱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사무국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PGA 투어 사무국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싱은 부상 치료를 위해 녹용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 제품에 금지약물인 'IGF-1' 성분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싱은 녹용 스프레이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금지약물 성분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항변했다.

NBA 선수 커밍아웃에 미 스포츠계 "아직은…"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제이슨 콜린스(34·사진)가 커밍아웃하자 미국 스포츠계가 들썩였다.

미국 ESPN의 농구 해설위원인 크리스 브로사드는 콜린스가 커밍아웃을 하자 바로 "동성애를 공개한다는 것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마스터스 골프 대회 우승자 버바 왓슨 역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브로사드의 신념을 존중한다"며 콜린스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하인스 워드는 이날 미국 NBC 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는 게이 선수들에 대한 편견은 없다"며 "그러나 NFL의 라커룸에는 수많은 선수가 함께 생활한다. 아직 공개된 게이 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민준기자

KIA 이틀 연속 '곰 사냥'…선두 수성

원정 14연승 질주…넥센·NC도 연승 행진 동참

물고기 신세 됐네

NC 포수 김태군이 튼 공을 잡으려 몸을 던졌지만 그물에 엉키고 있다 /연합뉴스

KIA가 투타의 완벽한 조화를 앞세워 이틀 연속 두산을 제압하여 선두(15승6패1무)를 지켰다.

KIA는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응의 7이닝 6피안타 1실점 호투와 김선빈의 4타구 4안타 3득점 1타점 맹활약에 힘입어 8-1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원정 14연승을 질주한 KIA는 빙그레(현 한화)가 보유중인 원정 최다 연승 기록에 1승 차로 다가섰다.

넥센은 대구구장에서 홈팀 삼성을 8-5로 꺾고 역시 이틀 연속 웃었다.

넥센 선발 투수 강윤구는 는 5⅓이닝 2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첫 승을 따냈다. 이성열을 비롯한 타선은 고비마다 화끈한 홈런포로 강윤구의 첫 승을 도왔다.

지난해 다승왕 삼성 장원삼은 7실점하며 2패째를 기록했다.

NC도 안방인 마산구장에서 LG에 7-6 2연승을 거뒀다.

김태군의 4회말 결승 스리런 홈런과 선발 투수 이재학의 5이닝 3실점 호투가 팀의 시즌 두 번째 연승을 이끌었다.

한편 올해 프로야구는 개막 후 100경기 만인 이날 시즌 관중 100만 명을 돌파했다.

전날까지 96경기에서 99만9983명을 동원한데 이어, 잠실구장이 이틀 연속 평일 매진(2만7000 명)을 달성해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조성준기자 when@

추신수 이틀 연속 2루타

추신수 이틀 연속 2루타

추신수(31 신시내티 레즈)가 이틀 연속 2루타를 쳤다.

추신수는 1일 열린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40에서 0.337로 약간 떨어졌다.

앞선 두 타석에서 모두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0-0으로 맞선 5회 초 2사 2루에서 상대 선발 하이메 가르시아의 커브를 받아쳐 좌중간 펜스를 직접 맞추는 큼지막한 2루타를 날렸다.

2경기 연속이자 올 시즌 8번째 2루타로, 2루 주자를 여유 있게 홈으로 불러들여 시즌 11번째 타점도 올렸다.

하지만 신시내티는 6회 존 제이 칼러더이에게 투런 홈런을 얻어맞아 1-2로 역전패했다. /김민준기자

수술+훈련요법 받으면 직장류 끙끙고통 끝이야

닥터 Q & A

Q 처녀 시절 다이어트한다고 아침 식사 거르기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는데 이후 한 번도 시원하게 변을 본 적이 없어요. 예물가 해야 할까요

A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다 내원하면 우선 환자가 변비를 유발하는 약을 먹는지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장운동 검사와 배변조영술이라는 검사입니다.

대장운동 검사는 대장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비가 생겼는지 알아보는 검사이며 배변조영술은 정상적으로 항문 근처까지 온 변이 제대로 배출되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많은 상담자들 중 대장운동 검사 결과 장운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배변조영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곤 합니다. 직장이 늘어지면서 변이 그 속으로 몰려 들어갔고 배변이 어렵게 된 것인데, 의학적으로는 직장류라고 합니다.

직장류의 발생 원인은 배변 시 만성적인 과도한 힘주기에 의한 이차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직장류의 크기가 항문 증상축에서 주로 4cm 이상이면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류의 수술은 약해진 벽을 보강해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며 수술 후 통증도 거의 없어 2~3일 뒤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자궁과 같은 장문질환이나 치골직장근 이완 부전증이라는 골반 근육의 이완 장애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상처가 회복되고 나면 바이오피드백 치료라는 훈련 요법을 받아 골반 근육의 이완 장애를 교정해주어야만 다시 재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날씨

5/2 木 일출시각 05:36 일몰시각 19:23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봄철에 눈이 가려우면 흔히 손으로 비비는데 이는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막이 결막에 감염되기 쉽고 눈 표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천식지수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지금 만나는 남자와 재혼 고심 새출발 좋지만 2016년 이혼수

고민녀 여자 81년 1월 14일 양력

Q 이혼 후 딸과는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커서 저랑 사는 게 좋은지 그냥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재혼이란 걸 해도 되는지. 재혼을 하게 되면 제 사주상 언제쯤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A 재혼한다면 2016년 반드시 다시 이혼하게 됩니다. 남자운이 약한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은 자신의 검정을 털어놓은 것뿐입니다. '달 속에 토끼'와 같이 가깝게 느끼고 정겨운 이미지의 소유자이지만 관성(官星)이 공망(空亡: 빌 공, 망할 亡)을 맞고 있군요. 게다가 귀문살(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의 사이로 가를로 헛갈리는 것)을 함께 동하고 있다면 만나는 사람의 인연을 마음보다는 현실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남자 사주가 전남편의 자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주가 되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군요. 따님은 자식 자리가 타지(他地)에 있으니 같이 사는 것보다는 떨어진 채로 지내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홀로 시골생활 어머니 건강 염려 바위틈 화초 처럼 끈질기고 강인

이군단 여자 39년 2월 23일 음력

Q 선생님의 명쾌한 판단입니다. 메트로 지면을 통하여 선생님의 훌륭한 상담 내용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7남매를 두셨고, 지금은 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데,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지면으로나마 여쭙고 싶습니다. 자식복은 있어서 같이 사실 수 있는지?

A 자연은 신비하여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달해줍니다. 좀 더 오래 사시기를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어머님은 바위 틈을 뚫고 자라나는 화초와 같이 언뜻 가냘프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상에 의 끈질김이 있고 내면은 금기(金氣)를 띠어 강인합니다. 신경통, 간장이 약하며 자손궁은 미약하여 아들이 없다고 봅니다. 도식(倒食: 밥그릇을 엎어버림)의 운을 맨나니 2013년 겨울을 주의하십시오. 밥그릇을 뒤집는 것은 곡기가 끊어짐을 나타냅니다. 과거 경제과도기에 시골에서 서울로 찾았던 시절을 보냈으나 미처 2015년이 되면 농업의 중요성을 크게 되는 시기로 전환될 것입니다. 농사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1						
	3						6	
9						7	2	3
8					3			
	1		5		7		8	
			8					9
6	4	9						7
	5						4	
						8	3	5

6				4	5		1	
8			9					5
		7					4	
				9	6			
1				8				2
			7	3				
	2					7		
9					1			8
	8		2	6				9

스도쿠 정답

[illegible]

[illegible]

문제 제공- 보누스
전사 스도쿠 플래티넘 (피터블 레오스 지음)

오늘의 운세 5월 2일 (음 3월 23일) 박청화 철학원 051)863-9305

쥐: 84년생 나와 생각이 같은 친구가 생길 듯. 72년생 괜한 심술과 비꼬임으로 오해를 더할 수도. 60년생 전반으로 일을 처리할 듯. 48년생 혼자서 좀을 처리하기보다 여우측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소: 85년생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73년생 단순히 계획을 입안해서 발표하지만 결과가 미지수. 61년생 금전을 구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49년생 한 일 없이도 되게 하니.

호랑이: 86년생 의외의 부가적인 이득이. 74년생 아랫사람의 실수로 괴로운 일이 발생할 듯. 62년생 금전적인 면에서 도움이 있을 수도. 50년생 참작수가 있으니 가능한 한 모든 시도를 해보아야.

토끼: 87년생 친구의 생의해야 편안한 일자리가 올 듯. 75년생 자식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어라. 63년생 정신적인 불편함이 해소되는 하루. 51년생 형제간에 서로 배려와 신경을 써야 할 듯.

용: 88년생 억압이 사라지니 여유 좀 즐겨도 될 듯. 76년생 틈틈히 친 보상은 약하나 정신적으로는 얻는 것이. 64년생 큰마음으로 모든 것이 잘게 받아들여지니. 52년생 금전적으로 윤택한 하루.

뱀: 89년생 경쟁 상황을 통해서 발전으로 나아가는 흐름. 77년생 주변 변동으로 인해 변화가 올 수 있으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65년생 금전 흐름의 어려움이 해소되니. 53년생 처리하기 힘든 일들이 해결되는 흔.

말: 78년생 책임질 일은 피하는 것이. 66년생 뜻밖의 횡운이 올 수도. 54년생 과다한 자랑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42년생 정신적인 운세가 해결되니 소규모의 금전적 지출은 있을 듯.

양: 79년생 경쟁심이 사라져서 지루한 하루. 67년생 정직함이 살 길이다. 돈은 자후의 문제. 55년생 과도한 경쟁심이 기로를 만하고. 43년생 불편하던 인간관계가 개선되어 건강에도 좋은 하루.

원숭이: 80년생 남의 시선을 받으니 수월을 수도. 68년생 관계하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를. 56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뜻을 이루니 현명한 자세를 보여야. 44년생 인생의 어둠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배워는 날.

닭: 81년생 작은 일은 정리되지만 큰은 지문할 듯. 69년생 정직한 생각과 반듯한 생활이 보답받는 날. 57년생 새로운 생각과 계획이 세워지는 하루. 45년생 울창히 일하지만 무엇인지 허전한 뜻한.

개: 82년생 허홉고 토한하이 올 것이 일은 하루가. 70년생 금전의 보상과 대가가 따를 듯. 58년생 운전 조심, 가벼운 접촉사고를 주의해야. 46년생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거절만이 상처될 듯.

돼지: 83년생 윗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도. 71년생 힘이 될 때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주력해라. 59년생 자들을 바라지만 돈구를 잡는 상상으로만 그칠 흔. 47년생 금전적인 문제로 편하지 않을 수도.